

Sport Industry

SI포커스

**KISS**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  
Korea Institute of Sport Science

## 스포츠산업 매출 규모 추이 분석

김 상 호(경동대학교)

- I 서론
- II 대분류에 따른 스포츠산업 매출 추이 분석
- III 중분류에 따른 스포츠산업 매출 추이 분석
- IV 결론 및 시사점

## 요 약

본 연구는 스포츠산업의 대분류와 중분류의 6년간(2012~2017년) 매출 규모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산업분야별 성장가능성을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우리나라 전산업 매출 규모는 산업통계분석시스템(ISTANS)에서 제공되는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스포츠산업의 매출 규모 관련 자료는 스포츠산업 분류 3개 대분류, 20개 중분류, 65개 소분류를 적용한 2012~2017년 기준으로 수행된 「스포츠산업 실태조사」 자료를 활용하였다.

그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스포츠산업은 전산업 매출의 2% 정도를 차지하였으며, 대분류에 따른 매출 규모의 연평균성장률은 스포츠시설업(7.95%), 스포츠용품업(4.54%), 스포츠서비스업(0.96%) 순으로 나타났다. 스포츠산업 매출 규모에서 3개 대분류 산업분야가 차지하는 비중에 대한 연평균성장률은 스포츠시설업(3.56%), 스포츠용품업(0.30%), 스포츠서비스업(-3.14%)의 순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매출 규모의 성장가능성은 스포츠시설업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스포츠용품업과 스포츠서비스업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둘째, 중분류 중 스포츠시설에 포함되는 6개 분야에서 기타 스포츠 시설 운영업,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수상스포츠 시설 운영업 그리고 참여스포츠 시설 운영업은 6년간 매출 연평균성장률이 10.53~15.33%를 기록하였으며, 전체 스포츠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의 연평균성장률도 6.04%~10.64%로 나타나 향후 성장가능성이 높은 분야로 볼 수 있다. 반면 스포츠 건설업은 매출과 전체 대비 매출비중의 연평균성장률이 모두 마이너스를 기록하여 향후 낮은 성장가능성을 나타냈다.

셋째, 스포츠용품업에 포함되는 6개 분야에서 스포츠 의류 및 관련 섬유제품 제조업, 운동 및 경기용품 소매업 그리고 운동 및 경기용품 임대업 분야는 5.86~13.21%의 연평균성장률을 기록하여 높은 매출 성장가능성을 나타낸 반면 운동 및 경기용품 제조업과 스포츠 가장 및 신발 제조업 분야는 마이너스의 성장률을 나타내 상대적으로 성장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넷째, 스포츠서비스업에 포함되는 8개 분야 중 스포츠마케팅업, 스포츠 미디어업, 스포츠 교육기관, 스포츠 게임 개발 및 공급업은 11.05~16.95%의 높은 매출 연평균성장률을 기록하였으며, 스포츠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에 대한 연평균성장률도 6.54~12.20%를 나타내어 성장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 1. 서론

문화체육관광부에서 2008년부터 실시한 「스포츠산업 실태조사」는 스포츠산업 전반의 실태 및 동향 파악을 목적으로 스포츠산업 시장 전체규모 뿐만 아니라 종사자 규모, 인력채용 현황, 영업 손익, 스포츠서비스업의 연간이용객 현황 등을 포함하고 있다.

국가승인통계 지정 목적에 부합하기 2008~2011년 기준조사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산업특수분류」 중 스포츠산업 분류를 적용하여 스포츠산업을 4개의 대분류, 15개의 중분류, 45개의 하위분류로 구분하여 실태조사를 진행하였으나, 2012년 기준조사부터는 스포츠산업의 현실을 보다 폭넓게 반영하기 위하여 30개의 신설업종을 포함하는 3개의 대분류, 20개의 중분류, 65개의 소분류를 적용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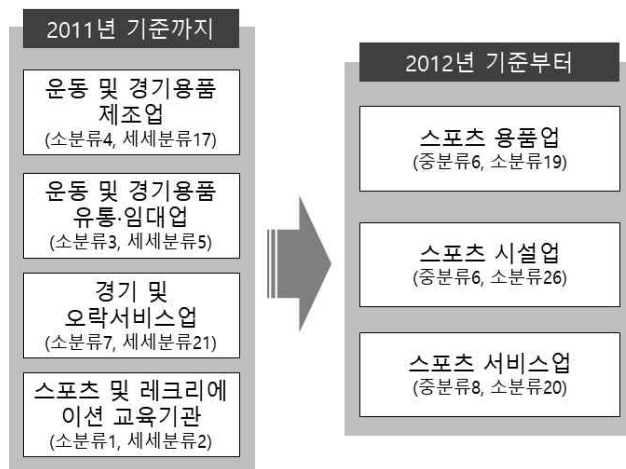


그림 2. 스포츠산업 분류 체계

표 1. 스포츠산업 신분류 체계의 신설업종

대분류	신설업종
스포츠 용품업	①셔츠 및 외의 도매업, ②가방 및 여행용품 도매업, ③신발 도매업, ④셔츠 및 기타 의복 소매업, ⑤가방 및 기타 가죽제품 소매업, ⑥신발 소매업, ⑦전자상거래업, ⑧기타 통신 판매업, ⑨그 외 기타 무점포 소매업, ⑩방문 판매업
스포츠 시설업	①기원 운영업, ②조경 건설업, ③기타 토목시설물 건설업
스포츠 서비스업	①사업 및 무형 재산권 중개업, ②경영컨설팅업, ③신문 발행업, ④잡지 및 정기간행물 발행업, ⑤라디오 방송업, ⑥지상파 방송업, ⑦프로그램 공급업, ⑧유선 방송업, ⑨위성 및 기타 방송업, ⑩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정보 제공업, ⑪온라인모바일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⑫기타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⑬일반 및 국외 여행사업, ⑭국내 여생사업, ⑮기타 여행보조 및 예약 서비스업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2012년부터 적용된 신분류 체계에 따라 실시된 2012~2017년 「스포츠산업 실태조사」 결과와 산업통계분석시스템(ISTANS)에서 제공하는 산업별 매출 관련 자료를 활용하여 스포츠산업 매출 현황을 분석하였다. 이는 매출 규모 추이 분석을 바탕으로 스포츠산업의 산업영역별 성장가능성을 예측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II. 대분류에 따른 스포츠산업 매출 추이 분석

산업통계분석시스템(ISTANS)에서 제공하는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산업 매출 규모는 2012년 기준 2,595.2조원 규모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7년도에는 약3,058.1조원으로 나타났으며, 동일기간(2012~2017년) 연평균성장률(CAGR)은 3.34%로 나타났다.

표 2. 스포츠산업 매출 현황 (2012~2017년)

(단위: 십억 원)

대분류	기준연도 매출액						2012~2017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증감	CAGR	
전산업 (A)	2,595,215	2,615,166	2,710,523	2,722,508	2,791,638	3,058,102	462,887	3.34%	
스포츠 산업(B)	매출액	57,517	61,860	63,160	65,155	68,446	70,760	13,243	4.23%
	B/A×100	2.22%	2.37%	2.33%	2.39%	2.45%	2.31%	0.10%	0.87%
스포츠 시설업(C)	매출액	11,969	14,221	15,095	16,217	17,199	17,543	5,574	7.95%
	C/B×100	20.81%	22.99%	23.90%	24.89%	25.13%	24.79%	3.98%	3.56%
스포츠 용품업(D)	매출액	27,237	31,101	31,376	32,616	33,550	34,011	6,774	4.54%
	D/B×100	47.35%	50.28%	49.69%	50.06%	49.02%	48.07%	0.71%	0.30%
스포츠 서비스업(E)	매출액	18,311	16,538	16,689	16,322	17,697	19,206	895	0.96%
	E/B×100	31.84%	26.73%	26.42%	25.05%	25.86%	27.14%	-4.69%	-3.14%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실시한 「스포츠산업 실태조사」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스포츠산업 매출 규모는 2012년 기준 약 57.5조 원 규모로 매년 꾸준한 증가추세를 보여 2017년에는 약 70.8조 원인 것으로 집계되었다. 또한 동일기간 스포츠산업 매출의 연평균성장률(CAGR)은 4.23%로 나타났다. 이는 전산업 연평균성장률(3.34%)에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큰 매출성장을 해 온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전산업 매출 규모 대비 스포츠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2년 2.22%, 2013년 2.37%, 2014년 2.33%, 2015년 2.39%, 2016년 2.45%, 2017년 2.31%로 2% 초중반대에서 변동을 보이고 있으며, 이 비중의 연

평균성장률은 0.87% 정도로 스포츠산업이 전산업에 차지하는 비중은 크게 증가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스포츠산업 대분류(스포츠시설업, 스포츠용품업, 스포츠서비스업)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스포츠시설업의 경우 3개의 대분류 중 가장 낮은 매출규모를 차지하는 영역으로 2012년 기준 약 12.0조 원 규모로 집계되었으며, 꾸준히 증가하여 2017년에는 약 17.5조 원으로 나타났다. 동일기간 연평균성장률은 7.95%로 전산업(3.34%)과 스포츠산업 연평균성장률(4.23%)을 크게 상회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스포츠산업 매출 규모 대비 스포츠시설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2년 20.81%, 2013년 22.99%, 2014년 23.90%, 2015년 24.89%, 2016년 25.13%, 2017년 24.79%로 꾸준히 비중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비중의 연평균성장률은 3.56%로 스포츠산업에서 스포츠시설업의 비중은 지난 6년간 꾸준히 상승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스포츠용품업의 경우 3개의 대분류 중 가장 높은 매출 비중을 차지하는 영역으로 2012년 기준 약 27.2조 원 규모로 집계되었으며, 꾸준히 증가하여 2017년에는 약 34.0조 원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동일기간 연평균성장률은 4.54%로 전산업(3.34%)과 스포츠산업 연평균성장률(4.23%)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스포츠산업 매출 규모 대비 스포츠용품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2년 47.35%, 2013년 50.28%, 2014년 49.69%, 2015년 50.06%, 2016년 49.02%, 2017년 48.07%로 40%후반에서 50%초반 대를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 비중의 연평균성장률은 0.30%로 스포츠산업에서 스포츠용품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일정하게 유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포츠서비스업의 경우 2012년 기준 약 18.3조 원 규모로 집계되었으며, 2013년에는 약 16.5조 원으로 감소하였으며, 2014년 약 16.7조 원, 2015년 약 16.3조 원, 2016년 약 17.7조 원, 2017년 약 19.2조 원으로 다소 심한 변동을 나타내고 있다. 동일기간 연평균성장률은 0.96%로 전산업(3.34%)과 스포츠산업 연평균성장률(4.23%)을 크게 하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스포츠산업 매출 규모 대비 스포츠서비스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2년 31.84%, 2013년 26.73%, 2014년 26.42%, 2015년 25.05%, 2016년 25.86%, 2017년 27.14%로 20% 중후반 대를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 비중의 연평균성장률은 -3.14%로 스포츠산업에서 스포츠서비스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감소 추세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를 종합해 보면, 스포츠산업은 전산업 매출의 2% 정도를 차지하였으며, 매출 규모의 연평균성장률은 스포츠시설업(7.95%), 스포츠용품업(4.54%), 스포츠서비스업(0.96%) 순

으로 나타났으며, 스포츠산업에서 3개 대분류가 차지하는 매출 비중에 대한 연평균성장률은 스포츠시설업(3.56%), 스포츠용품업(0.30%), 스포츠서비스업(-3.14%)의 순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매출 규모의 성장가능성은 스포츠시설업이 가장 크고, 스포츠용품업과 스포츠서비스업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이와 같은 결과를 바탕으로 어떤 산업분야에서 성장가능성이 높은가를 살펴보기 위해 스포츠산업의 중분류에 대한 매출 규모 분석을 실시하였다.

### III. 중분류에 따른 스포츠산업 매출 추이 분석

우리나라 스포츠산업의 매출 규모를 대분류에 따른 20개의 중분류 산업분야로 구분하여 매출 추이를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 1. 스포츠시설업 중분류 매출 현황

스포츠시설업 중 경기장운영업의 매출 규모는 2012년 기준 약 3.2조 원으로 집계되었으며, 꾸준한 증가추세로 2017년도에는 약 3.9조 원의 매출액을 기록하였다. 동일기간 연평균성장률은 4.15%로 전체 스포츠산업 연평균성장률(4.23%)에 약간 밑도는 수준이었다. 또한 스포츠산업 매출 규모 대비 본 사업영역이 차지하는 비중은 6년간 5% 중반을 유지하였으며, 이 비중의 연평균성장률은 -0.08%로 나타나 꾸준히 매출 규모를 유지해 온 것으로 조사되었다.

참여스포츠 시설 운영업의 경우 2012년 기준 약 3.2조 원으로 집계되었으며, 꾸준한 증가추세로 2017년도에는 약 5.3조 원의 매출액을 나타냈다. 동일기간 연평균성장률은 10.53%로 전체 스포츠산업 연평균성장률(4.23%)을 크게 상회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스포츠산업 매출 규모 대비 본 사업영역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2년 기준 5.63%, 2013년도 7.15%, 2014년도 7.06%, 2015년도 7.22%, 2016년도 7.26%, 2017년도 7.56%로 매년 꾸준하게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으며, 이 비중의 연평균성장률도 6.04%로 조사되었다.

표 3. 스포츠시설업의 중분류 산업분야 매출 현황 분석 (2012~2017년)

(단위: 십억 원)

대분류	중분류	기준연도 매출액						2012~2017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증감	CAGR	
스포츠 시설업	스포츠산업(A)	매출액	57,517	61,860	63,160	65,155	68,446	70,760	13,243	4.23%
	경기장 운영업(B)	매출액	3,173	3,335	3,541	3,845	3,879	3,888	715	4.15%
		B/A×100	5.52%	5.39%	5.61%	5.90%	5.67%	5.49%	-0.02%	-0.08%
	참여스포츠 시설 운영업(C)	매출액	3,241	4,423	4,459	4,706	4,971	5,346	2,105	10.53%
		C/A×100	5.63%	7.15%	7.06%	7.22%	7.26%	7.56%	1.92%	6.04%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D)	매출액	3,383	4,899	5,124	5,561	6,150	6,030	2,647	12.25%
		D/A×100	5.88%	7.92%	8.11%	8.54%	8.99%	8.52%	2.64%	7.70%
	수상스포츠시설 운영업(E)	매출액	65	78	92	94	104	112	47	11.50%
		E/A×100	0.11%	0.13%	0.15%	0.14%	0.15%	0.16%	0.05%	6.97%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F)	매출액	150	200	228	248	275	306	156	15.33%
F/A×100		0.26%	0.32%	0.36%	0.38%	0.40%	0.43%	0.17%	10.64%	
스포츠 건설업(G)	매출액	1,957	1,286	1,651	1,763	1,820	1,861	-96	-1.00%	
	G/A×100	3.40%	2.08%	2.61%	2.71%	2.66%	2.63%	-0.77%	-5.02%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의 경우 2012년 기준 약 3.4조 원에서 2016년까지 약 6.2조 원의 매출 규모로 꾸준히 증가하였으나 2017년도에는 전년도 대비 다소 감소한 약 6.0조 원을 기록하였다. 동일기간 연평균성장률은 12.25%로 전체 스포츠산업 연평균성장률(4.23%)을 크게 상회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스포츠산업 매출 규모 대비 본 사업 영역이 차지하는 비중도 2016년까지는 꾸준히 증가하였으며, 2017년에는 전년도 대비 다소 감소하는 매출 규모 증가 추이와 유사한 양상을 보였다. 그리고 이 비중의 연평균 성장률도 7.70%로 조사되어 스포츠산업 매출에서 본 사업의 비중이 꾸준히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상스포츠 시설 운영업 경우 2012년 기준 약 650억원에서 매년 꾸준히 증가추세에 있으며, 2017년도에는 약 1,120억원의 매출 규모를 기록하였다. 동일기간 연평균성장률은 11.50%로 전체 스포츠산업 연평균성장률(4.23%)을 크게 상회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전체 스포츠산업에서 본 산업영역이 차지하는 비중은 0.11%~0.16%로 스포츠 시설업 중에서 가장 작지만 매년 꾸준히 증가하여 연평균 6.97% 성장률을 기록하였다.

기타 스포츠 시설 운영업의 경우 2012년 기준 약 0.2조 원에서 매년 증가하여 2017년도에는 약 0.3조 원으로 파악되었으며, 동일기간 연평균성장률은 15.33%로 전체 스포츠



산업 연평균성장률(4.23%)을 크게 상회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뿐만 아니라 스포츠시설업의 6개 중분류 산업영역 중 가장 높은 연평균성장률을 기록하였다. 스포츠산업 매출 규모 대비 본 사업영역이 차지하는 비중은 높지 않지만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2년도는 0.26%에서 2017년도에는 0.43%까지 증가하였다. 그리고 이 비중의 연평균성장률도 10.64%로 조사되어 스포츠산업 매출에서 본 사업의 비중이 꾸준히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포츠 건설업은 2012년 기준 약 2.0조 원에서 2013년도에 대폭 감소한 약 1.3조 원 매출을 기록하였으며, 이후로 꾸준히 증가하여 2017년도에는 약 1.9조 원으로 집계되었다. 동일기간 연평균성장률은 -1.00%로 전체 스포츠산업 연평균성장률(4.23%)을 크게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포츠산업 매출 규모 대비 본 산업영역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2년 3.40%, 2013년 2.08%, 2014년 2.61%, 2015년 2.71%, 2016년 2.66%, 2017년 2.63%로 2% 초중반 대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비중의 연평균성장률은 -5.02%로 감소추세를 나타냈다.

이를 종합해 보면, 기타 스포츠 시설 운영업,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수상스포츠 시설 운영업 그리고 참여스포츠 시설 운영업은 6년간 매출 연평균성장률이 10.53~15.33%를 기록하였으며, 전체 스포츠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의 연평균성장률도 6.04%~10.64%로 나타나 향후 성장가능성이 높은 분야로 볼 수 있다. 반면 스포츠 건설업은 매출과 전체 대비 매출비중의 연평균성장률이 모두 마이너스를 기록하여 향후 낮은 성장가능성을 나타냈다.

## 2. 스포츠용품업 중분류 매출 현황

스포츠용품업 중 운동 및 경기용품 제조업의 매출 규모는 2012년 기준 약 2.0조 원으로 집계되었으며, 2013년도에는 약 1.6조 원으로 급감하여 2017년까지 약 1.7조 원으로 약간의 변동폭을 보이면서 유지되고 있다. 동일기간 연평균성장률은 -3.41%로 전체 스포츠산업 연평균성장률(4.23%)을 크게 하회하였으며, 스포츠산업 매출 규모 대비 본 사업영역이 차지하는 비중도 -7.33%로 계속 감소하는 추세에 놓여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포츠 의류 및 관련 섬유제품 제조업의 매출 규모는 2012년 기준 약 3.6조 원으로 조사되었으며, 꾸준히 매년 증가하여 2017년도에는 약 4.7조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동일기간 연평균성장률 5.41%로 전체 스포츠산업 연평균성장률(4.23%)을 상회하였



다. 스포츠산업 매출 규모 대비 본 사업영역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2년 기준 6.23%에서 2017년도에는 6.59%로 연평균성장률 1.13%로 나타나 꾸준하게 조금씩 비중이 높아지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9. 스포츠용품업의 중분류 산업분야 매출 현황 분석 (2012~2017년)

(단위: 십억 원)

대분류	중분류	기준연도 매출액						2012~2017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증감	CAGR	
스포츠 용품업	스포츠산업(A)	매출액	57,517	61,860	63,160	65,155	68,446	70,760	13,243	4.23%
	운동 및 경기용품 제조업(H)	매출액	1,999	1,582	1,561	1,663	1,704	1,681	-318	-3.41%
		H/A×100	3.48%	2.56%	2.47%	2.55%	2.49%	2.38%	-1.10%	-7.33%
	스포츠 의류 및 관련 섬유제품 제조업(I)	매출액	3,585	3,763	4,164	4,279	4,428	4,665	1,080	5.41%
		I/A×100	6.23%	6.08%	6.59%	6.57%	6.47%	6.59%	0.36%	1.13%
	스포츠 가방 및 신발 제조업(J)	매출액	1,072	1,199	1,099	1,135	1,121	1,064	-8	-0.15%
		J/A×100	1.86%	1.94%	1.74%	1.74%	1.64%	1.50%	-0.36%	-4.20%
	운동 및 경기용품 도매업(K)	매출액	8,841	9,149	9,675	10,137	10,901	10,958	2,117	4.39%
		K/A×100	15.37%	14.79%	15.32%	15.56%	15.93%	15.49%	0.12%	0.15%
	운동 및 경기용품 소매업(L)	매출액	11,676	15,291	14,775	15,301	15,284	15,524	3,848	5.86%
		L/A×100	20.30%	24.72%	23.39%	23.48%	22.33%	21.94%	1.64%	1.56%
	운동 및 경기용품 임대업(M)	매출액	64	117	102	101	112	119	55	13.21%
M/A×100		0.11%	0.19%	0.16%	0.16%	0.16%	0.17%	0.06%	8.61%	

스포츠 가방 및 신발 제조업의 매출 규모는 2012년 기준 약 1.1조 원으로 2017년까지 등락을 거듭하고 있었으며, 동일기간 연평균성장률은 -0.15%로 전체 스포츠산업 연평균 성장률(4.23%)을 크게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포츠산업 매출 규모 대비 본 사업영역이 차지하는 비중도 2012년 기준 1.86%에서 2017년도에는 1.50%로 조사되었으며, 이에 대한 연평균성장률은 -4.20%로 나타나 감소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운동 및 경기용품 도매업의 매출 규모는 2012년 기준 약 8.8조 원으로 지속적으로 매년 증가하여 2017년도에는 약 11.0조 원까지 증가하였으며, 동일기간 연평균성장률은 4.39%로 전체 스포츠산업 연평균성장률(4.23%)을 약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포츠산업 매출 규모 대비 본 사업영역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2년 기준 15.37%에서 등락을 거듭하여 2017년도에는 15.49%로 나타났으며, 이에 대한 연평균성장률은 0.15%로 나타나 꾸준하게 유지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운동 및 경기용품 소매업의 매출 규모는 2012년 기준 약 11.7조 원이었으며, 2013년에는 크게 상승한 약 15.3조 원을 기록하였다. 이후 등락을 거듭하여 2017년에는 약 15.5조 원으로 집계되었다. 동일기간 연평균성장률은 5.86%로 전체 스포츠산업 연평균 성장률(4.23%)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포츠산업 매출 규모 대비 본 사업영역이 차지하는 비중은 20% 초중반대로 이에 대한 연평균성장률은 1.56%로 나타나 꾸준히 유지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운동 및 경기용품 임대업의 매출 규모는 2012년 기준 약 640억 원에서 2017년도에는 약 1,190억 원으로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동일기간 연평균성장률은 13.21%로 전체 스포츠산업 연평균성장률(4.23%)을 크게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산업영역은 스포츠용품업 중분류 산업영역 중 0.11~0.19%정도로 가장 낮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연평균성장률은 8.61%로 나타나 꾸준히 그 비중이 높아지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3. 스포츠서비스업 중분류 매출 현황

스포츠서비스업 중 스포츠경기업의 매출 규모는 2012년 기준 약 7.2천억 원으로 집계되었으며, 2013년도에는 약 4.8천 원으로 급감하였으며,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성장하여 2017년에는 7.3천억 원을 기록하였다. 동일기간 연평균성장률은 0.47%로 전체 스포츠산업 연평균성장률(4.23%)을 크게 하회하였으며, 스포츠산업 매출 규모 대비 본 사업영역이 차지하는 비중도 -3.61%로 계속 감소하는 추세에 놓여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포츠베틀업의 매출 규모는 2012년 기준 약 11.9조 원으로 이후로 지속적인 감소추세로 2017년에는 7.9조 원으로 집계되었다. 동일기간 연평균성장률은 -7.91%로 전체 스포츠산업 연평균성장률(4.23%)을 크게 하회하였으며, 스포츠산업 매출 규모 대비 본 사업영역이 차지하는 비중도 -11.64%로 낮은 성장가능성을 보였다.

스포츠마케팅업은 2012년 약 1.1조 원의 매출 규모를 나타냈으며,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7년의 매출 규모는 약 1.9조 원으로 집계되었다. 이는 동일기간 연평균성장률 12.09%로 전체 스포츠산업 연평균성장률(4.23%)을 크게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포츠산업 매출 규모 대비 본 사업영역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2년 기준 1.83%에서 2017년 2.64%까지 꾸준히 상승하여 연평균성장률 7.54%를 기록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성장가능성을 제시하였다.

표 10. 스포츠서비스업의 중분류 산업분야 매출 현황 분석 (2012~2017년)

(단위: 십억 원)

대분류	중분류	기준연도 매출액						2012~2017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증감	CAGR	
스포츠서비스업	스포츠산업(A)	매출액	57,517	61,860	63,160	65,155	68,446	70,760	13,243	4.23%
	스포츠 경기업(N)	매출액	715	478	647	655	700	732	17	0.47%
		N/A×100	1.24%	0.77%	1.02%	1.01%	1.02%	1.03%	-0.21%	-3.61%
	스포츠 베팅업(O)	매출액	11,948	9,297	8,520	7,791	7,942	7,915	-4,033	-7.91%
		O/A×100	20.77%	15.03%	13.49%	11.96%	11.60%	11.19%	-9.59%	-11.64%
	스포츠마케팅업(P)	매출액	1,055	1,305	1,375	1,462	1,629	1,867	812	12.09%
		P/A×100	1.83%	2.11%	2.18%	2.24%	2.38%	2.64%	0.80%	7.54%
	스포츠 미디어업(Q)	매출액	547	447	445	383	923	976	429	12.28%
		Q/A 100	0.95%	0.72%	0.70%	0.59%	1.35%	1.38%	0.43%	7.72%
	기타 스포츠 정보 서비스업(R)	매출액	38	8	11	10	11	15	-23	-16.96%
		R/A×100	0.07%	0.01%	0.02%	0.02%	0.02%	0.02%	-0.04%	-20.34%
	스포츠 교육기관(S)	매출액	1,198	1,361	1,561	1,666	1,807	2,023	825	11.05%
		S/A×100	2.08%	2.20%	2.47%	2.56%	2.64%	2.86%	0.78%	6.54%
	스포츠 게임 개발 및 공급업(T)	매출액	1,924	2,328	2,487	2,594	2,767	3,740	1,816	14.22%
		T/A×100	3.35%	3.76%	3.94%	3.98%	4.04%	5.29%	1.94%	9.58%
스포츠 여행업(U)	매출액	886	1,314	1,643	1,761	1,918	1,938	1,052	16.95%	
	U/A×100	1.54%	2.12%	2.60%	2.70%	2.80%	2.74%	1.20%	12.20%	

스포츠미디어업의 매출 규모는 2012년 약 5.5천억 원에서 2013년 약 4.5천억 원으로 소폭 하락한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7년에는 약 9.7천억 원을 기록하였다. 이는 동일기간 연평균성장률 12.28%로 전체 스포츠산업 연평균성장률(4.23%)을 크게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스포츠산업 매출 규모 대비 본 사업영역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2년 기준 0.95%로 낮았으나 2017년에는 1.38%까지 상승하여 연평균성장률 7.72%를 기록하여 비교적 성장가능성이 좋은 산업분야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타 스포츠 정보서비스업의 경우는 2012년 기준 약 380억 원의 매출 규모에서 2013년 약 80억 원으로 대폭 하락하였으며, 이후부터 등락을 거듭하여 2017년에는 약 150억 원의 규모를 나타냈다. 이는 동일기간 연평균성장률 -16.96%로 전체 스포츠산업 연평균성장률(4.23%)을 크게 밀도는 수준이었다. 또한 스포츠산업 매출 규모 대비 본 사업영역

이 차지하는 비중도 2012년 기준 0.07%에서 2017년 0.02%로 하락하여 연평균성장률 20.34%를 기록하였다.

스포츠교육기관의 매출 규모는 2012년 기준 약 1.2조원으로 집계되었으며,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7년에는 약 2.0조 원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동일기간 연평균성장률 11.05%로 전체 스포츠산업 연평균성장률(4.23%)을 크게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스포츠산업 매출 규모 대비 본 사업영역이 차지하는 비중도 2012년 2.08%에서 2017년 2.86%까지 지속적인 증가추세로 연평균성장률 6.54%를 기록하였다.

스포츠 게임 개발 및 공급업의 매출 규모는 2012년 기준 약 1.9조 원이었으며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7년에는 약 3.7조 원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동일기간 연평균성장률 14.22%로 전체 스포츠산업 연평균성장률(4.23%)을 크게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스포츠산업 매출 규모 대비 본 사업영역이 차지하는 비중도 2012년 3.35%에서 2017년 5.29%까지 꾸준히 매년 증가하여 연평균성장률 9.58%를 기록하였다.

스포츠 여행업의 매출 규모는 2012년 기준 약 8.9천억 원이었으며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7년에는 약 1.9조 원으로 집계되었다. 이는 동일기간 연평균성장률 16.95%로 전체 스포츠산업 연평균성장률(4.23%)을 크게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스포츠산업 매출 규모 대비 본 사업영역이 차지하는 비중도 2012년 1.54%에서 2017년 1.74%까지 꾸준히 증가하여 연평균성장률 12.2%로 높은 성장가능성을 나타냈다.

### Ⅲ. 결론 및 시사점

스포츠산업의 매출 연평균성장률 4.23%와 우리나라 전산업 중 스포츠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에 대한 연평균성장률 0.87%를 기준으로 국내 스포츠산업의 중분류 20개 산업분야에 대한 성장가능성을 진단하였다.

스포츠시설업에 해당되는 6개의 중분류 분야 중 경기장운영업을 제외한 5개 분야에서는 기준치보다 매출 연평균성장률과 비중 연평균성장률 모두 기준치보다 높게 나타나 성장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스포츠용품업에 해당되는 6개 중분류 분야 중 스포츠 의류 및 관련 섬유제품 제조업, 운동 및 경기용품 소매업 그리고 운동 및 경기용품 임대업 분야는 성장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 운동 및 경기용품 제조업과 스포츠 가장 및 신발 제조업 분야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운동 및 경기용품 도매업은 매출에서는 기준치보다 높은 반

면 비중에 대한 연평균성장률은 기준치보다 낮게 나타나 보통 수준의 성장가능성을 나타냈다.

대분류	중분류	CAGR_매출	CAGR_비중	성장가능성
	기준: 스포츠산업	4.23%	0.87%	
스포츠 시설업	경기장운영업	4.15%	-0.08%	--
	참여스포츠 시설 운영업	10.53%	6.04%	++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12.25%	7.70%	++
	수상스포츠시설 운영업	11.50%	6.97%	++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15.33%	10.64%	++
스포츠 용품업	스포츠 건설업	-1.00%	-5.02%	--
	운동 및 경기용품 제조업	-3.41%	-7.33%	--
	스포츠 의류 및 관련 섬유제품 제조업	5.41%	1.13%	++
	스포츠 가방 및 신발 제조업	-0.15%	-4.20%	--
	운동 및 경기용품 도매업	4.39%	0.15%	+-
	운동 및 경기용품 소매업	5.86%	1.56%	++
스포츠 서비스업	운동 및 경기용품 임대업	13.21%	8.61%	++
	스포츠 경기업	0.47%	-3.61%	--
	스포츠 베팅업	-7.91%	-11.64%	--
	스포츠마케팅업	12.09%	7.54%	++
	스포츠 미디어업	12.28%	7.72%	++
	기타 스포츠 정보 서비스업	-16.96%	-20.34%	--
	스포츠 교육기관	11.05%	6.54%	++
	스포츠 게임 개발 및 공급업	14.22%	9.58%	++
스포츠 여행업	16.95%	12.20%	++	

- ※ '++': 높은 성장가능성(매출 연평균성장률과 스포츠산업 중 해당 산업이 차지하는 매출 규모 비중에 대한 연평균 성장률이 모두 기준치보다 높은 경우)
- ※ '--': 낮은 성장가능성(매출 연평균성장률과 스포츠산업 중 해당 산업이 차지하는 매출 규모 비중에 대한 연평균 성장률이 모두 기준치보다 낮은 경우)
- ※ '+-' 또는 '-+': 보통 수준 성장가능성(매출 연평균성장률과 스포츠산업 중 해당 산업이 차지하는 매출 규모 비중에 대한 연평균성장률 두 개 중 하나만 기준치보다 낮은 경우)

스포츠서비스업에 해당되는 8개 중분류 분야 중 5개 영역(스포츠마케팅업, 스포츠 미디어업, 스포츠 교육기관, 스포츠 게임 개발 및 공급업)은 성장가능성이 높은 분야로 조사된 반면, 스포츠 경기업, 스포츠 베팅업 그리고 기타 스포츠 정보 서비스업은 성장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 Sport Industry SI 포커스

**발간목적:**

SI 포커스의 발간목적은 국내 스포츠산업 동향에 대한 부문별 심층 분석을 통하여 스포츠산업 부문별 지원전략 및 정책 시사점을 도출하는데 있다.

**발행처:**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 스포츠산업연구실

정지명(스포츠산업연구실 실장/책임연구위원)

유의동(스포츠산업연구실, 수석연구위원)

김상훈(스포츠산업연구실, 선임연구위원)

김민수(스포츠산업연구실, 선임연구위원)

고경진(스포츠산업연구실, 연구위원)

신성연(스포츠산업연구실, 연구위원)

박선영(스포츠산업연구실, 연구위원)